

1부 예배 대표기도문(2020년 3월 15일)

[찬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 삶을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어 이 세상과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회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보좌에 앉아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를 위한 간구]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길이 고단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귀한 송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일수록 주님의 품을 더욱 파고드는 송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임직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송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영혼을 향한 간절함으로 사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로 선출되게 하시어,
송원교회를 생명공동체로 세워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과 원로목사님을 위한 간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담임목사님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 육 간에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송원교회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원로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농어촌 사역에 헌신 하실 때 모든 지역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송영]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감격과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비록 흠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